https://doi.org/10.18856/jpn.2026.32.3.007

드라마 〈모범택시〉 시리즈에 나타난 사적 제재의 대행 양상 연구*

박상완**

1. 들어가며
2. 서사 주기(週期) 속 사적 제재 대행의 필연성
3. 서사 요소의 변주와 상상된 사적 제재 대행
4. 분노의 전이와 새로운 사적 제재 주체의 출현 가능성
5. 나가며

국문초록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적 제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드라마 〈모범택시〉 시리즈에 나타난 사적 제재의 대행 양상을 총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모범택시〉 시리즈는 기본적인 서사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서사 구조를 통해 현실의 전시된 정보는 허구의 기록된 이야기로 재구성되고, 시즌이 거듭되면서 사적 제재 대행의 의미는 개인적 회복에서 사회적 치료로 확장된다. 이처럼 허구의 이야기가 주기성을 갖게 됨에 따라 사적 제재 대행은 당위성과 필요성을 초월해 응당 그래야만 하는 필연적 행위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B5A16028380).

** 전남대학교 교육혁신본부 강사

www.kci.go.kr

다음으로 〈모범택시〉 시리즈는 각종 서사 요소가 시즌에 따라 변주된다는 특징도 존재한다. 이러한 삭제, 추가, 변형을 통해 강화되는 것은 결국 사적 제재 대행의 의의다. 사적 제재 대행이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성과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행위처럼 포장됨에도 그것이 진정으로 옳은 행위인가라는 고민은 약화된다.

결국 〈모범택시〉 시리즈에 나타난 사적 제재의 대행 양상은 시즌별로 개념적 발흥, 논리적 정립, 논리의 확산으로 요약된다. 그 토대는 분노라는 감정이지만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분노는 피해자에서 관찰자로 전이되고 도덕적 명분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적 제재 주체의 발흥 가능성이 생긴다. 타인의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불안한 대중이 바로 그들이다.

(주제어: 복수, 분노, 사적 제재 대행, 서사 주기, 정의, 〈모범택시〉)

1. 들어가며

지난 2025년 12월 한 유튜버 채널에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을 공익적 취지로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로부터 오히려 겁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영상이 업로드되었다. 영상 공개 직후에는 공권력을 불신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경찰을 비난하는 여론이 거세졌지만 이내 상황은 반전되었다. 해당 유튜버가 이른바 악명 높은 사이버 렉카였고,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으며, 무엇보다 실제 장애인 가족을 태우려던 운전자를 유튜버 일당이 강제로 가로막고 촬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1)]

1) 〈여경 '공익 제보자' 협박 논란에 "악의적 편집"…반박 나선 경찰〉, 『KNN NEWS』, 2025.12.19., https://www.youtube.com/watch?v=NKkSMR97Sf8&t=94s, (접

www.kci.go.kr

이후 영상이 삭제되고 해당 유튜버가 다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은 시들해졌지만 이 사건은 최근 한국사회의 문제적인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의 인권을 거리낌 없이 침해하는 천박한 물질주의와 이에 악용되는 디지털 플랫폼, 무분별하게 벌어지는 사적 제재와 그 빌미가 되는 도덕적/법적 준칙, 신자유주의 시대 갈수록 높아지는 공격 심리와 이에 매몰되어 세계를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대중 등이 그것이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특정 이슈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 내지 개인/집단의 목적을 위해 각종 정의 준칙을 수단화하는 것은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위 사건의 특이성은 자경단을 자처하는 이들의 출현과 그들에 대한 대중의 열광에 있지 않을까 싶다. 자경단과 대중은 불법을 통해서라도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무의식으로 공모한다. 이들은 정당성을 묻는 사람들에게 사적 제재의 시발점이 물질적 이득이었든 심리적 만족이었든 결국은 악을 응징함으로써 사회가 보다 정의로워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정의를 명분으로 삼는 은밀한 공모는 불법적인 수단에 대한 우려를 거세하고 무분별한 사적 제재에 대한 비판을 침묵시킨다.

드라마 〈모범택시〉 시리즈[2]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캐치프레이즈 '복수대행 써-비스'에서부터 드러나듯 이 시리즈는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신해 가해자에게 복수를 하는 사적 제재 대행 이야기[3]를 그리는데, 그 복수는 법의 경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바, 무지개운수

속일: 2026.07.17.)

2) 시즌 1 : 오상호·이지현 극본, 박준우 연출, SBS, 16회, 2021.04.09.-2021.05.29.
시즌 2 : 오상호 극본, 이단·장영석 연출, SBS, 16회, 2023.02.17.-2023.04.15.
시즌 3 : 오상호 극본, 강보승 연출, SBS, 16회, 2025.11.21.-2026.01.10.

3) 박상완은 최근 드라마 속 사적 제재는 개인 간의 원한과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수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상완, 「공권력에 의한 사

www.kci.go.kr

일당은 "법과 질서와 같은 공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불법적 행위를 저질러서라도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특정한 대상을 처벌"[4]하는 자경단 그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시리즈가 사적 제재/복수 등의 키워드와 관련되어 일찌감치 학술적 주목을 받았던 것도 그래서이다.[5] 시즌 1에 대해 이루어진 이들 선행연구는 공권력을 상징하는 캐릭터의 의미, 현대사회에서의 복수 대행과 정의 실현의 의미, 복수 대행 이후의 삶에 대한 평가 등에서는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지만, 현실의 사법 체계가 지닌 한계로 인해 대중의 불만이 증폭[6]되었고 정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징벌적 체계가 상상[7]되는 가운데 현실과 친연성이 높은 드라마가 이를 반영하게 되었다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공유한다. 실제로 시즌 1 방송 이후 사적 제재가 부정의한 세계에서의 대안적 상상력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다양한 소재와 결합한 장르드라마들이 대거 출몰하고 있다는 점[8]은 선행연구들의 기본 관점에

적 제재의 수행 원리와 아젠다 고찰 -〈나쁜 녀석들〉, 〈비질란테〉, 〈지옥에서 온 판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9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5, 201쪽). 이에 따르면 드라마 속 사적 제재는 주체, 방식, 토대 등을 기준으로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는데, 사적 제재 드라마를 '외주화, 이원화, 플랫폼화'로 각각 분석한 안혜연의 최근 연구가 한 예이다(안혜연, 「신자유주의 시대 사적 복수의 시스템화와 정의의 탈정치화 -〈모범택시〉, 〈지옥에서 온 판사〉, 〈국민사형투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10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26, 145-178쪽). 본고는 〈모범택시〉 시리즈가 타인의 원한을 대리 해결해주는 사적 제재 대행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4) 송치혁, 「1970~1980년대 수사드라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54쪽.

5) 김윤진, 「엄벌에 대한 대중의 열망 : TV 드라마 속 사적 제재의 정당화 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백소연(a), 「〈모범택시〉에 나타난 응보적 정의의 구현 양상과 그 의미」, 『문화와 융합』 제44권 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1025-1042쪽; 박노현(a), 「복수사회, 법치와 정의의 무능과 복수라는 권능- 드라마 〈모범택시〉·〈3인칭 복수〉·〈더 글로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62권 3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35-65쪽; 김윤진, 「엄벌에 대한 대중의 열망 : TV 드라마 속 사적 제재의 정당화 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6) 백소연(a), 위의 글, 1031쪽; 박노현(a), 위의 글, 37쪽

7) 김윤진, 위의 글, 5쪽.

www.kci.go.kr

타당성을 부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관점은 논리적 타당성과는 별개로 학술적 의의가 크다고 보기는 힘들다. 반영론에 기초한 이 관점에 따르면 드라마는 언제나 현실의 뒤를 따라가며 유행이 지난 사회적 이슈는 외면한다. 드라마를 통해 현실을 읽어낼 수는 있지만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변화하는 드라마-현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왜'의 연장선에 있는 '그래서'의 문제, 즉 '무엇이 말해지는가'의 문제다. 시즌 1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시리즈 전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이다. 2년 주기로 방송되어 사적 제재에 대한 시청자의 욕망을 자극하고 동시대와 교호했던 시리즈 전체를 재고함으로써 서두에서 언급했던 사건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진단하고, 그래서 어떤 더 극단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지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범택시〉 시리즈는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상당한 변화지점이 포착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동명의 원작 웹툰을 영상화한 시즌 1은 대부분의 서사 요소가 원작에 기반했지만, 시즌 2, 3은 사적 제재 대행 설정과 중요 캐릭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이 새롭게 창작되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원작이 보여주었던 파격성과 급진성이 다소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반대로 사적 제재 대행이라는 핵심 모티프에 대한 관점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본문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모범택시〉 시리즈는 기본적인 서사 구조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미묘한 변주를 가함으로써 시청자와 연쇄적으로 교감하였다. 외부 시간과 내적 시간이 함께 순환하면서 만들어지는 유

8) 백소연(b), 「사적 제재의 변질: 공권력의 일탈과 게임화된 정의- 〈노 웨이 아웃: 더 룰렛〉을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제64권 4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5, 189-212쪽.

www.kci.go.kr

대감을 한국 시즌제 드라마의 특성[9]이라고 본 박노현의 언급을 빌려오면, 〈모범택시〉 시리즈는 고유의 방식을 통해 구축되는 극적 정동과 연관해 사적 제재 관련 메시지를 점층적으로 발전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필요성 외에도 선행연구들이 모두 시즌 1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고는 시즌 1~3을 두루 살펴 〈모범택시〉 시리즈의 사적 제재 대행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시즌이 진행됨에도 변하지 않는 설정, 구조, 캐릭터 등을 분석함으로써 시청자의 수용 효과에 대해 논구할 것이다. 다음으로 시즌별로 달라지는 캐릭터, 형식, 관점 등을 분석해 사적 제재 대행이 어떻게 말해지는지 규명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시즌별 상동성과 상이성을 바탕으로 하여 〈모범택시〉 시리즈의 사적 제재 대행의 의미/논리 변화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최근 한국 드라마의 화두 중 하나인 사적 제재를 대행이라는 측면에서 그려낸 〈모범택시〉 시리즈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를 통해 동시대 사회문화현상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확장되기를 바란다.

2. 서사 주기(週期) 속 사적 제재 대행의 필연성

이혜정은 로버트 맥키의 분류 방식을 재구성해 시즌제 드라마를 크게 '단편종결형, 단편선집형, 연속단편형, 시즌종결형, 시즌연결형'으로 구분한다.[10] 그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대 이후 케이블 채널을 중심으로 시즌제 드라마가 활성화되기 시작해 지상파와 OTT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

9) 박노현(b), 「극적 정동(Dramatic Affect)으로서의 시즌제 드라마 - JTBC 미니시리즈 〈모범형사2〉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제68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435쪽.

10) 이혜정, 「글로벌 시즌제 K-드라마 기획개발 방식 연구 : 〈지나의 잔치〉 시리즈의 기획 실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15쪽.

www.kci.go.kr

황으로, 초창기에는 단편형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지옥〉과 같은 시즌형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11] 이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드라마 산업이 미니시리즈 중심이었고, 하나의 작품이 성공하면 그것을 기초로 한 후속작을 제작하는 것이 관행[12]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모범택시〉 시리즈는 김도기, 장성철, 안고은, 최/박 주임으로 이루어진 무지개운수 일당이 억울한 피해자의 의뢰, 혹은 사연을 접한 뒤 법을 초월한 방식으로 가해자에게 복수하거나 그들을 응징한다는 내용의 작품이다. 한 시즌은 개별적으로 완결되는 6~7개 에피소드로 구성되며, 각 에피소드는 대부분 2회로 종결되지만 시즌별로 1~2개 에피소드는 4회에 걸쳐 진행되기도 한다. 3개 시즌, 총 19개 에피소드는 모두 '피해 발생 및 인지(발단) - 사실 확인과 의뢰 접수(전개) - 가해자 조사와 실체 파악(위기) - 사적 제재 실행(절정) - 후일담(결말)'이라는 구조로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처럼 주요 사건이 매 에피소드별로 종결되고 반복되기 때문에 〈모범택시〉 시리즈는 연속단편형 시즌제 드라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막돼먹은 영애씨〉, 〈낭만닥터 김사부〉, 〈슬기로운 의사생활〉 등 다른 연속단편형 시즌제 드라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유형은 외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적 시간이 흐르면서 시청자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중요 인물들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먼저 인물 구성을 살펴보자. 〈모범택시〉 시리즈의 작중 인물들은 역할/기능(role)에 따라 피해자, 가해자, 대행자로 크게 유형화된다. 이때 피해자/가해자가 매 에피소드마다 새롭게 등장하는 것에 비해 대행자인 무지개운수 일당 다섯 명은 시즌 1부터 3까지 이탈 없이 모두 그대로 등장하고

11) 위의 글, 36쪽.
12) 김일중 외, 「OTT 플랫폼의 한국 드라마 서비스 확대와 드라마 제작사의 전략 변화」, 『인문콘텐츠』 제59호, 인문콘텐츠학회, 2020, 155-194쪽.

www.kci.go.kr

담당 배우도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2년 주기라는 외부 시간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성장한다. 시즌 1 마지막 회에서 무지개운수 대표 장성철은 복수 대행업의 종료를 선언하고 일당은 뿔뿔이 흩어진다. 그리고 2년 후 방송된 시즌 2에서는 작중 시간 역시 2년이 지난 것으로 설정되어 이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고, 살고 있는지가 1회 초반부에 그려진다. 모든 혐의를 뒤집어쓰고 고초를 겪다가 간신히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택시회사 운영에 곤란을 겪는 장성철과 그의 곁에 남은 김도기, 특기를 살려 항공우주연구소와 자동차 회사에 입사한 최/박 주임, 경찰이 된 안고은 등이 그것이다. 다시 2년 후 방송된 시즌 3에서도 전 시즌 메인 악역 집단 금사회의 공격으로 엉망이 되었던 택시회사를 복구하는 모습, 무지개운수의 첫 의뢰인이었던 인물의 알츠하이머 발병, 시간이 지나 어머니 살해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김도기, 혼자만 택시 자격증이 없다가 팀에 도움이 되고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안고은 등을 통해 외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부 인물들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성장을 보여준다. 이처럼 극중 인물들이 고정되어있지 않고 외부 현실의 시간 흐름에 발맞추어 변모하기 때문에 시청자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지금-여기-우리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게 된다.

다음으로 〈모범택시〉 시리즈는 사건을 통해서도 시청자와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이는 크게 보면 외부 사건의 반영과 내부 사건의 호명으로 이루어진다. 사실 수사 장르 드라마에서 현실 사건을 모티프로 삼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하다 보기 힘들고, 대중이 이러한 현실 사건 반영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는 것 역시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13] 〈모범택시〉 시리즈에서도 이

13) 정지송, 「법은 가해자들에게 그들의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있는가? - 웹툰 〈비질란테〉를 통해 본 네티즌의 응보에 대한 여론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3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221쪽.

www.kci.go.kr

러한 방식은 자주 활용[14]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12.3 비상계엄사태를 반영한 시즌 3 마지막 에피소드다.[15] 방송 시점 기준 불과 1년 전에 발생한 유명 사건을 반영함으로써 〈모범택시〉 시리즈는 극적 세계를 외부 현실과 동일한 시공간 층위에 위치시킨다. 한편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지난 시즌의 사건들이 언급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김도기는 시즌 1, 2에서 교사, 프로그래머, 대포폰 업자, 사이비 무당 등 다양한 캐릭터로 위장하는데, 시즌 3 범죄 코디네이터 조직 삼흥도파 사건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이지 않은 경력을 내세워 오히려 범죄자들의 신뢰를 얻는다. 이 외에도 〈모범택시〉 시리즈는 무지개운수의 복수 대행업의 시작과 장성철의 과거, 김도기의 군 복무 시절, 안고은 언니의 자살, 최/박 주임의 보이스피싱 피해, 김도기와 애증의 관계인 범죄자 림복자 등을 해당 에피소드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으로 언급한다. 이에 따라 시청자는 〈모범택시〉 시리즈를 일회적인 가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어딘가에서 벌어지는, 하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이야기처럼 느끼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물/사건 중심의 일깨움을 통해 〈모범택시〉 시리즈는 언제나 시청자와 동시대에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극적 세계가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구조적 동일성과 반복에서 비롯되는 상투성은 피하기 어렵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범택시〉 시리즈는 매 에피소드마다 참신하고 흥미로운 설정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야기를 보여주는 방식과 그것을 통한 효과다. 다시 말해 시청자로 하여금 극적 사건을 현실에서 벌어

14) 김윤진, 앞의 글, 38-61쪽 참조.

15) 해당 에피소드에서 가해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12.3 비상계엄사태에 가담한 전현직 군인들의 밝혀진 행보와 그대로 일치하지만,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한 것인지 대통령은 등장하지 않는다.

www.kci.go.kr

지는 것처럼 느끼도록 하되, 그것을 실제 현실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하는 것은 〈모범택시〉에서 다뤄지는 사건의 비일상성과 정보의 제약이다. 매 에피소드마다 그려지는 범죄는 흉악하기 그지없고, 가해자는 이해를 불허하는 잔혹한 소시오패스[16]이며, 피해자는 삶이 극단적으로 파괴된 평범한 사람들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 현실에서 이러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면 그 사회는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 실제로는 이러한 사건들이 희소하고 그에 직접 연루되는 상황 역시 드물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비일상적 사건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위기의식과 불안 심리가 작동하기도 하지만 보다 현실적인 원인, 즉 정보의 극단적인 확산 문제[17]를 꼽지 않을 수가 없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정보는 갈수록 더욱더 빠르게 유포되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이상 그것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내 눈과 귀에 들어온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현대인들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음에도 비일상적인 사건을 수시로 접하게 되어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그것은 가상의 바이러스처럼 확산[18]된다. 문제는 그렇게 알게 되는 정보가 사실은 편린에 불과하다는 데에 있다. 가령 어떤 중범죄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 대중은 범죄의 결과를 먼저

16) 테리 이글턴의 '악' 개념에 따르면 이러한 소시오패스는 선천적으로, 자유의지에 따라 악을 행하는 괴물이다(테리 이글턴, 『악』, 오수원 옮김, 이매진, 2015, 46-48쪽). 괴물로서의 악은 악행 자체의 잔혹함과 악인의 악마성을 부각함으로써 범죄가 발생한 사회적 맥락을 방기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백소연(a), 앞의 글, 1027-1030쪽). 이는 최근 유사 장르의 여러 작품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인 바, 별도의 학술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17) 조너선 하이트, 『불안 세대』, 이충호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24, 46-64쪽.

18)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2, 19쪽.

www.kci.go.kr

알게 되고, 체포되는 가해자를 그 다음에 보게 되며,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에 대한 처벌 결과를 접하게 된다. 하지만 '범죄 이전 상황과 발생 맥락, 공권력의 범행 파악 및 체포 과정, 재판 진행 및 최종 판결 이유, 그리고 그 이후 피해자의 삶 등'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거나 아예 알려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모범택시〉 시리즈의 서사 구조는 실제 현실의 비일상적인 사건과 단편적인 정보들 사이에 존재하는 빈 곳을 채우는 작업, 다시 말해 '전시'된 정보를 이야기로 '기록'[19]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 서사화 과정을 통해 시청자가 허구의 이야기를 현실 범죄 사건과 다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생겨난다.[20]

첫째, 범죄가 발생한 맥락과 가해자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은 장르적 특성과 결합해 재구성된다. 〈모범택시〉 시리즈에서 그려지는 범죄는 대부분 외부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집단, 혹은 자체적인 규율이 존재하는 독립적인 조직에서 발생한다. 시즌 1의 교외 젓갈공장, 고등학교 교실, IT업체 특수부서, 시즌 2의 해외 범죄조직, 사이비 종교 사유지, 병원 수술실, VIP 전용 클럽, 시즌 3의 중고차 매매 회사, 아마추어/프로 스포츠 팀, 연예 기획사, 군대 등이 그것으로, 무지개운수 일당은 이곳을 다양한 방법으로 파헤쳐 피해자/의뢰인의 사연보다 더 많은 진실을 알게 된다. 이

19) 한병철, 『서사의 위기』, 최지수 옮김, 다산초당, 2023, 16쪽.

20) 이는 작품의 인기 원인과는 무관한, 어디까지나 작품을 통해 조정되는 시청자의 사적 제재 인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미리 밝힌다. 윤석진은 드라마 속 시적 정의가 시청자의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지만 문제적 현실이 해소되었다고 착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윤석진, 「신자유주의 시대, '치유(治癒)' 혹은 '기망(欺罔)'의 텔레비전드라마 - 언론과 법조 소재 미니시리즈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92집, 어문연구학회, 2017, 294-295쪽), 〈모범택시〉 시리즈의 정보의 공백을 채우는 서사화 방식 역시 시청자에게는 극적 재미를 선사하지만 모티프로 삼은 실제 현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일으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www.kci.go.kr

러한 과정은 숨겨진 정보의 탐색 놀이이자 현실에 대한 사색적/성찰적 행위라는 수사드라마의 특성[21]과도 결부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코미디 기법이다.



〈그림1〉



〈그림2〉



〈그림3〉

김도기가 대포폰 업자로 위장한 〈그림1〉(시즌 1, 10회), 무당으로 위장한 〈그림2〉(시즌 2, 8회), 킬러로 위장한 〈그림3〉(시즌 3, 2회)에서 알 수 있듯이 무지개운수 일당은 가해자를 속이거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매번 다른 신분으로 위장을 하고 과장된 연극을 벌인다. 일단 이러한 비일상적인 모습과 작위적인 행동은 즉자적인 웃음을 유발[22]하기 때문에 범행 파악 과정에서의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또한 매 에피소드마다 위장/과장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서사 구조의 상투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시청자는 무의식적인 기대 속에서 재미를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 위장과 과장은 개연성 형성과 공감대 구축에 기여한다. 예를 들어 〈그림3〉의 김도기는 조직 보스를 위해 살인을 하고 수배 중이라는 충성심 높은 킬러라는 설정인데, 이는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해당 에피소드 가해자 야쿠자 두목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었다. 즉, 〈모범택시〉 시리즈의 위장/과장은 단순 재미를 위해서 무작위적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내밀한 욕망과 해

21) 권양현, 「텔레비전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캐릭터 유형의 변화 양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42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252-253쪽.
22) 스티브 닐·프랭크 크루트니크, 『세상의 모든 코미디』, 강현두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99-102쪽.

www.kci.go.kr

당 에피소드의 범죄 성격에 맞춰져 전략적으로 선택된다. 그래서 위장/과장에 속은 가해자들의 말로는 결국 자승자박이 되고,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응보주의의 실현[23]과 맞닿기 때문에 시청자는 웃음과 결합된 복수의 통쾌함을 느끼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모범택시〉 시리즈는 현실에서는 알 수 없었던 범죄의 실체를 그려내는 과정에서 장르물로서의 특성[24]을 활용하여 시청자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동시에 극적 사건을 개연적이고 당위적인 이야기[25]로 탈바꿈시킨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된 허구는 충격적으로 다가오지만 범죄의 다층적 맥락을 알지 못해 금세 휘발되는 현실의 사건에 비해 시청자 자신의 세계 인식에 더욱 영향을 끼치는 특별한 체험이 될 가능성을 얻게 된다.[26]

둘째, 가해자에 대한 복수, 혹은 처벌 이후 피해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후일담식으로 그려진다. 〈모범택시〉 시리즈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로 인해 원래의 행복했던 삶이 무너져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거나, 해소되지 못한 한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무지개운수 일당의 활약에 의해 이들은 원래의 일상을 되찾게 되고 매 에피소드의 말미에는 아래 〈그림4〉(시즌 1, 2회)처럼 그것이 후일담처럼 반드시 그려진다.

23) 백소연(a), 앞의 글, 1033쪽.
24) 김도기가 보여주는 화려한 액션 장면도 장르물로서의 특성 중 하나이다(김윤진, 앞의 글, 109-115쪽).
25) 최시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5, 31-32쪽.
26) 위의 책, 72-73쪽.

www.kci.go.kr


〈그림4〉


〈그림5〉


〈그림6〉

이러한 후일담은 시즌 3의 16회에서 집약된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전 특수전사령관은 군인들을 포격으로 살해한 뒤 북한의 도발로 위장해 계엄령을 선포할 음모를 꾸민다. 하지만 이를 간파한 무지개운수 일당은 작전 지역에서 앞 에피소드에 등장했던 아이돌 그룹의 게릴라 콘서트를 〈그림5〉처럼 열어 포격을 저지하고, 이후 시즌 3의 모든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그림6〉처럼 펼쳐진다.[27] 이들은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불법 사채로 인해 해외로 인신매매된 여고생, 중고차 사기를 당해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남은 일생까지 저당 잡힌 가장, 아들의 실종과 억울한 죽음에 오랜 한을 품었던 알츠하이머 노인, 범죄 조직에 의해 역으로 사기꾼으로 몰린 중고거래 피해자, 동료가 살해된 탐사전문기자 등으로 이들의 후일담은 이미 해당 에피소드에서 그려졌지만 시즌 말미에서는 그 이후의 행복한 삶까지도 그려진다. 사실 작품 내적으로만 봤을 때는 납치, 강간, 폭행, 협박, 살해 등의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아무리 가해자가 처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웃고 떠들며 콘서트를 즐기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28] 하지만 이와 같은 작위적인 장면은 오히려 무지개운수 일

27) 최전방 군사 통제지역에 민간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은 분명 작위적이지만, 해당 에피소드가 12.3 비상계엄사태를 반영했음을 감안하면 이는 실제 현실에서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해 비상계엄령이 해제되었던 상황을 은유한 장면이라 할 수 있고,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관점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28) 김태경 외의 연구에 따르면, 강력범죄 피해자의 10명 중 9명은 유의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했고, 그 중 3명은 별도의 치료가 요구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으며, 강간 피해자의 후유증이 가장 심각했다(김태경 외, 「강력범죄 피해자의 외상

www.kci.go.kr

당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회복(recovery)에서 치료(cure)로 확장시키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가해자가 사라진 세계에서 비로소 피해자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자신과 같은 다른 피해자들과 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무지개운수 일당이 피해자 개인을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끈 것이다. 이처럼 〈모범택시〉 시리즈는 현실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피해자의 이후의 이야기를 그려냄으로써 사적 제재 대행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다. 시청자에게는 사적 제재 대행이 불법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위험인자를 제거하는 치료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위한 조건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렇게 재구성된 비일상적인 사건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청하면서 시청자는 안정감을 경험하게 된다. 동일 서사 구조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상투성을 달리 말하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범택시〉 시리즈의 서사 구조는 상술한 두 측면으로 인해 또 다른 효과를 만들어낸다. 우려한 일은 발생하지 않고 모든 것이 기대한 대로 진행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때의 우려란, 그들 가해자가 처벌을 피해가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불안을 의미한다. 하지만 무지개운수 일당은 위장/과장을 통해 그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가해자를 반드시 단죄한다. 실제 현실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중범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극적 세계에서는 완벽하게 끊어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대란, 그럼으로써 바라는 안정과 평화를 뜻한다. 무지개운수의 활약을 통해 피해자는 일상을 회복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실제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했던 애도와 치유의 가능성이 극적 세계에서는 역시 완벽하게 구현된다는 것이다.[29]

후 스트레스 증상 및 예측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8, 37-39쪽).

www.kci.go.kr

그리고 주지하듯 이러한 과정은 매 에피소드마다, 매 시즌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시청자가 느끼는 안정감은 갈수록 견고해진다. 그런 점에서 결국 〈모범택시〉 시리즈와 그 속에서 반복되었던 서사 구조는 일종의 주기(週期)나 다름없다. 일, 주, 월, 연, 계절 등 순환하면서 반복되는 주기에 대해 상투성을 느끼는 사람이 없듯이, 그런 주기가 반복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함을 느끼듯이 〈모범택시〉 시리즈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자 자연의 섭리처럼 느껴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안정감으로 인해 무지개운수 일당의 사적 제재 대행은 필연(必然)과도 같은 행위로 시청자에게 수용된다. 사적 제재에는 종종 필요악이라는 수식어가 붙곤 하지만 순환하고 반복되는 주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혹은 그러한 주기를 완성시키는 조건인 사적 제재 대행에는 그런 가치 판단과 합목적성이 일절 고려되지 않는다. 가해자를 파악하고 단죄하는 과정에서의 사적 제재 대행은 무지개운수의 위장/과장처럼 하나의 놀이이자 당위적인 행위가 되고, 피해자를 구제하고 위무하는 결말에 이르러서의 사적 제재 대행은 무너진 삶의 치료제이자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행위가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옳은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나와 우리를 살리는, 혹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필연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도덕이나 법률보다 우위에 위치하게 된다.

남은 문제는 사적 제재 대행에 대한 용인과 수용 과정에서 묵인되거나

29) 장성철이 설립한 피해자 지원 단체 파랑새 재단은 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극적 장치다. 가해자 처벌 이후 무지개운수 일당은 파랑새 재단을 활용해 피해자의 물질적 손실을 회복시켜주고 이후의 삶에도 경제적/정신적 지원을 해준다. 이러한 파랑새 재단의 활동은 시즌 1에 집중되어있기는 하지만 시즌 2와 3에서도 간혹 그려지는데, 무지개운수 일당이 시즌 1 첫 에피소드 피해자와 함께 보육원 봉사를 하는 상황(시즌 3, 5회)이 대표적이다.

www.kci.go.kr

간과되는 것들이다. 먼저 가해자 처벌 수위다. 시즌 1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말로를 맞이하는 것은 불법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를 지키려다 의도치 않게 폭사하는 웹하드 업체 회장(8회)이라 할 수 있는데, 시즌 2에서는 무지개운수 일당에 의해 양손이 훼손되어 불구가 되는 대리수술 병원장(19회)이 그려지고, 시즌 3에서는 무지개운수 일당이 직접 수장, 생매장, 압사, 폭탄, 총격 등으로 직접 살인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사적 제재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극단화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지개운수 일당의 선제(先制)적 행동이 있다. 시즌 1은 모든 에피소드가 무지개운수의 명함을 우연히 얻은 피해자가 복수 대행을 의뢰하면서 시작되지만, 시즌 2는 의뢰로 시작되는 에피소드가 적어지고, 시즌 3에 이르러서는 첫 에피소드를 제외한 모든 에피소드가 무지개운수 일당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촉해 복수 대행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피해자가 대행자를 찾는 방식에서 대행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30] 이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재론하겠으나 이에 담긴 의도와 의미 또한 시청자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상술했듯 〈모범택시〉 시리즈의 서사 주기 속 사적 제재 대행은 가치 판단이나 합목적성과 무관해지지만 그에 내재한 명백한 악행성과 의도성은 모순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적 제재의 본질적 한계를 지워버릴 위험[31]까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30) 복수 대행이 사실상 청부 폭력이라는 지적(박노현(a), 앞의 글, 55쪽)을 떠올리면, 이는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청부업자가 나서서 원한을 해소해주는 모순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31) 백소연은 최근 드라마의 자경주의가 악인에 대한 고통의 실천으로 전환되면서 실행 주체를 정당한 응징자로 호명하고 정의가 쇼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다(백소연(b), 앞의 글, 198, 206쪽).

www.kci.go.kr

3. 서사 요소의 변주와 상상된 사적 제재 대행

앞 장에서 살펴봤듯이 〈모범택시〉 시리즈는 늘 시청자와 같은 시공간에 위치한다. 그러나 어제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오늘이 조금씩 바뀌고 있듯 〈모범택시〉 시리즈 역시 미묘하게 변화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서사 주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눈에 쉽게 감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주목해야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모범택시〉 시리즈의 사적 제재 대행에 대한 관점은 2장에서 살핀 측면들과 더불어 이러한 상이한 서사 요소들과도 관련되어 있고, 이로 인한 효과가 시청자에게 안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삭제, 혹은 탈각되는 부분이다. 이는 다시 인물, 설정, 형식으로 나뉘는데, 먼저 인물 측면에서는 공권력 관련 비중 있는 인물이 시즌 1 이후 등장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시즌 1에 등장하는 검사 강하나는 초반에는 무지개운수 일당을 쫓다가 동료 수사관을 잃은 12회 이후에는 무지개운수 일당과 공조하고 마지막 회 엔딩에서는 아예 팀원으로 합류하는 행보를 보이는데, 이는 기존 사법적 질서에서의 사적 제재에 대한 입장과 관련된다. 연구 관점에 따라 평가는 다소 다르지만 공권력을 상징하는 그녀를 통해 말해지는 것은 결국 합법, 혹은 불법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이다.[32] 하지만 시즌 2, 3에서는 전형적인 선악 역할만 하는 경찰/검사만 간혹 등장할 뿐 강하나와 같은 비중 있는 공권력 관련 인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강하나의 고뇌와 변화가 기존 사법 체계의 무능과 한계로부터 발생했다는 점[33]을 감안하면 애초에

32) 김윤진, 앞의 글, 99, 115쪽; 박노현(a), 앞의 글, 52-53쪽; 백소연(a), 앞의 글, 1037쪽.

www.kci.go.kr

공권력 관련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사적 제재가 기존 사법 체계를 초월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공권력의 무능에서 부재로의 변화는 살아남기 위해서 탈법/불법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만 하는 더욱 극악한 희망 없음의 징표이자, 사적 제재의 공권력 대체 가능성에 대한 단초라 할 수 있다.

설정 측면에서는 사설 감옥과 감금이 사라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시즌 1에서 무지개운수 대표 장성철은 납치한 가해자를 불법 사채업자이자 장기매매조직 수장과 공모해 만든 사설 감옥에 가둔다. 감금의 의도는 크게 세 가지다. 가축 이하의 열악한 환경에 던져놓음으로써 피해자 이상의 고통을 겪게 하는 것과 이를 통해 최소한의 반성을 하라는 것, 그리고 교정/교화되지 않을 경우 사회로부터 직접 격리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34] 물론 피해자 유가족이기도 한 장성철에게는 이러한 명분 이면에 가학적인 복수심리 또한 존재한다.[35] 하지만 이러한 극적 상황과는 별개로 작품 외적 측면에서 보면, 어찌 됐든 생존 상태의 감금이라는 점은 가해자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 혹은 사적 제재 수위 판단에 대한 난항/망설임이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런데 앞 장의 말미에서 서술했듯이 시즌 2를 거쳐 사적 제재의 수위가 더욱 극단화된 시즌 3에 이르러서는 사설 감

33) 백소연(a), 앞의 글, 103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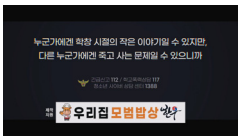
34) 장성철 : 우리 주변의 쓰레기들을 다 수거해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킬 생각이야. 난 그들을 교화시킬 거야.(시즌 1, 2회)

35) 현실의 조두순을 반영한 조도철을 장성철이 납치 감금한 뒤 심문하는 상황이 대표적이다. 반성은커녕 피해자를 조롱하고 탈출해서 보복하겠다는 조도철에게 장성철은 "네가 감옥에 있는 동안 네 딸 선민이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결혼을 했어. 예쁜 쌍둥이 딸까지 낳았네. (중략) 내가 다 알려줄게. 사랑하는 아내의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지, 그 인간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네 사위한테 다 얘기해줄게. 그리고 네 사위가 다니는 학교에도, 예쁜 쌍둥이 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도 낱낱이 다 얘기해줄게."(시즌 1, 5회)라고 협박을 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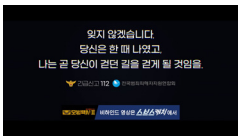
www.kci.go.kr

옥이나 감금은커녕 가해자를 망설임 없이 죽여 버리는 처벌만 존재하고, 사적 제재 대행의 정당성에 대한 작중 인물들의 고민 역시 실종된다. 이처럼 특정 공간의 삭제는 사적 제재 대행의 목적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단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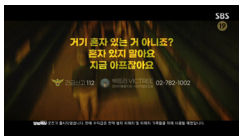
형식 측면에서는 엔딩 카피가 사라진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시즌 1과 2에서는 해당 에피소드의 범죄와 관련된 신고 전화번호와 가해자 혹은 피해자에게 전하는 문구 등이 〈그림7, 8〉처럼 크레디트가 올라가기 전 자막으로 삽입되지만, 시즌 3에서는 엔딩 카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7〉



〈그림8〉



〈그림9〉

특히 시즌 1과 2의 마지막 회 엔딩 카피가 〈그림9〉처럼 모두 “거기 혼자 있는 거 아니죠? 혼자 있지 말아요. 지금 아프잖아요.”라는 동일한 문구였는데 시즌 3에서는 이것조차 삭제되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앞 장에서 언급한 사적 제재 대행의 치료적 성격과 무지개운수 일당의 선제적 행동이 다시 문제시되는 것도 이 대목이다. 시즌 1, 2가 억울한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방식이었다면, 시즌 3은 피해자가 용기를 내기도 전에 먼저 나서서 가해자를 응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엔딩 카피의 삭제는 사적 제재 대행이 공감과 위로를 넘어선, 혹은 벗어난 행위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주기적으로 응당 이뤄져야만 하는 필연으로서의 권능이기 때문에 정보 전달, 경고, 공감/위로를 동반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때의 사적 제재 대행은 공권력이 미처 하지 못했던 악의 응징에 발 벗고 나

www.kci.go.kr

선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법 체계를 대체하는 성격까지도 지닌다. 이를 통해 구현되는 것은 결국 인과응보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적 제재의 대행은 그 어떤 도덕도, 법도 실현하지 못했던 완벽히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첫걸음[36]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생긴다.

둘째,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이다. 〈모범택시〉 시리즈는 외부 현실의 시간 흐름에 맞춰 변화하기 때문에 매 에피소드 역시 최신화되는데, 사적 제재 대행과 관련해 주목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캐릭터성이다. 시즌 1~3의 피해자들은 모두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해소할 방법이 없는 힘없는 평범한 사람들, 즉 사회적 약자다. 성, 장애, 빈곤, 신입, 노인, 질병, 고아, 미성년, 후배, 연습생, 후임 등이 그것인데, 시즌 3부터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설정에 '사적 욕망'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시즌 3의 피해자들 중 해외로 인신매매된 여고생은 가난을 타개하고자 사행성 게임에 손을 댔다가 불법 사채의 늪에 빠졌고, 중고차 사기를 당한 가장은 구하기 어렵고 비싼 개인택시 면허를 빠르고 싸게 취득하려다 사기를 당했으며, 승부 조작에 연루된 대학 배구선수들과 성 접대에 내몰린 아이돌 연습생들은 각각 프로 지명과 데뷔라는 꿈을 위해 작은 부조리를 외면하다가 더 큰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 시즌 1, 2의 피해자들이 문자 그대로 어느 순간 아무 이유 없이 피해를 입는 인물들인 반면 시즌 3의 피해자들은 각자의 조건 하에서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가해자의 표적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37]

---

36) 박노현(a), 앞의 글, 39쪽.

37) 이는 시즌별 피해자 형상화 방식의 차이에서도 확인된다. 시즌 1, 2에서는 범죄 발생 이전 피해자의 삶이 그려지지 않거나 단편적으로만 그려지는데, 시즌 3에서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피해자의 전사(前史)까지도 모든 에피소드마다 상세하게 그려진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홀어머니와 지방에서 살면서 단짝 친구와 함께 댄스 영상을 찍어 연예기획사에 보내다가 어느 날 오디션 제안을 받고, 오디션 합격 후 연습생이 된

www.kci.go.kr

이때 유념해야 하는 것은 이들 시즌 3 피해자들의 욕망이 보편적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욕망은 경제적 풍요, 자아실현, 효율성과 합리성 등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현실 세계에서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다. 그래서 피해자들처럼 현실 논리에 충실히 살고 있는 시청자에게는 이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시즌 1, 2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가련한 힘없는 약자처럼 보인다는 뜻이다. 그 연장선에서 이들의 욕망 추구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그것이 범죄 피해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 시즌 3 피해자들은 그저 자신이 속한 세계의 논리와 질서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던 소시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3 피해자들에게 추가된 캐릭터성은 사적 제재 대행의 변화한 양상과 관련해 또 다른 의미로 읽힐 여지가 있다. 피해자들만큼이나 가해자들 역시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인물들이고 이들이 공유하는 욕망의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38] 즉 이들은 욕망 달성을 위해 똑같이 노력하는 현대인들이지만 방법과 과정의 합법성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한 욕망 추구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불법일 경우에 등장하는 것이 무지개운수 일당이다. 반대로 보면 무지개운수 일당은 욕망의 추구 자체, 즉 현대사회의 질서와 논리에 대해서는 긍정한다. 문제는 이 지점이다.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질서에서 돌출된 이들을 제거하는 것이 사

뒤에는 서울까지의 출퇴근이 버거워 자퇴하고 어머니 몰래 상경해 숙소에 들어오는 여고생의 전사가 대표적이다.

38) 시즌 3 여고생 에피소드의 가해자 일본 야쿠자는 국제 인신매매, 택시기사 에피소드의 중고차 사기 일당은 합법 매매 사업, 배구부 에피소드의 승부 조작 강요 인물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총책, 중고거래 사기 에피소드의 배후는 각종 범죄를 컨설팅해주는 조직으로 이들은 모두 돈이라는 물질적 욕망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아이돌 그룹 에피소드의 가해자 기획사 대표는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데뷔가 무산된 과거가 있어 데뷔를 꿈꾸는 연습생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좌절시키면서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충족하는 인물이다.

www.kci.go.kr

적 제재라 한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한 사회가 원만하게 작동하도록 기능한다.[39] 사적 제재가 있어야 구성원들의 욕망 추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고, 그것이 없다면 각자의 욕망이 충돌하면서 피해자가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망상적 공포감[40]이 확산되고,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는 무기력한 불안감이 증폭된다. 결국 사적 제재는 스포츠 경기의 심판처럼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규율로서 요청 되고, 욕망의 무한 경쟁이 공정하다는 착각을 일으킨다.[41]

셋째,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변형되는 부분이 있다. 이는 무지개운수 대표 장성철의 집에 걸려있는 액자의 문구가 대표적이다.



〈그림10〉



〈그림11〉



〈그림12〉

〈그림10〉과 〈그림11〉은 각각 시즌 1과 2로 이때의 액자 문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성경 문구다. 이를 통해 무지개운

39) 신주진은 복수가 "발생한 불균형을 균형으로 되돌리는 것"(신주진, 「'복수 정동'의 이행 구조 연구 : 2000년 이후 한국 TV드라마 '복수극'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71쪽)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사적 제재는 복수와 교집합을 이룬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드라마 속 복수가 사적 복수(신주진, 같은 글, 100쪽)인 것에 비해, 사적 제재는 사회 질서와 관련해 오히려 공적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40) 위의 글, 88-89쪽.

41) 이는 앞서 언급한 공권력 관련 인물들의 삭제와 다시 관련되는 문제다. 규율화되는 사적 제재는 결국 구성원들이 합의한 법과 동등한 위상이 된다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올바른 법 실현을 통해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역할을 방기하고 오직 경쟁의 메커니즘이 잘 수행되도록 하는 신자유주의 국가가 있기 때문이다(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심세광 외 옮김, 난장, 2012, 219쪽).

www.kci.go.kr

수 일당이 자신들의 행위를 선으로 인식하고 행동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하지만 〈그림12〉 시즌 3에서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문구로 바뀐다. 본래의 출처와 용례[42]를 감안하면 시즌 3의 문구는 이타적 행위의 실천과 의의라는 의미를 지닌다. 〈모범택시〉 시리즈의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무지개운수 일당의 행위에는 분명 이타성이 존재하고 이를 통한 치료의 가능성까지도 제시되기 때문에 세상을 개선한다는 취지 또한 충족된다. 문제는 이것이 시즌 1과 2를 지난 후의 상황이라는 점이다. 시즌 1, 2에서는 공권력 관련 인물과 감금/사설 감옥이 등장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적 제재 대행이 과연 정의인가라는 고민이 존재했지만 결국 그것은 액자 문구처럼 선(善)으로 인정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적 제재 대행이 재고의 여지가 없는 옳은 행위라는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정말로 그것은 정의인가.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를 구하는 행위일까?

이 지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시즌 3 아이돌 걸그룹 에피소드다. 각주 38에서 언급했듯 이 에피소드는 물질주의가 개입되기는 하지만 가해자의 뒤틀린 자아실현 욕망이 핵심인데, 사적 제재 대행이 과연 정의인가라는 질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이 가능하다. 먼저 무지개운수 일당이 문제 삼는 가해자의 행위 수위다. 아이돌 연습생들은 자퇴를 종용받고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못하며 심각한 영양실조에 빠지고 약물에 중독될 정도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하고 강압적인 규칙을 1년 이상 따르던 상태다. 하지만 사전조사를 통해 이를 알게 된 뒤에도 무지개운수 일당은 안타까워하기만 할 뿐이고 그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은

42) 본래 이 문구는 탈무드에 나오는 경구인데,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에 의해 살아남은 유대인 대표가 쉰들러에게 선물한 반지에 새긴 문구(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로 대중적으로 더욱 알려졌다.

www.kci.go.kr

기획사 대표가 데뷔한 연습생들을 스폰서에게 팔아넘기면서부터다. 그 전까지의 상황은 데뷔라는 꿈과 욕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과정으로 보지만 데뷔 자체가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적 제재 대행에 나선다는 뜻이다. 반대로 기획사 대표의 성 접대가 없었다면 무지개운수 역시 나서지 않았을 것이고 연습생들이 겪는 부조리한 상황들은 계속 묵인되었을 것이다. 명백히 문제적인 상황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외면 받는다면, 나아가 처벌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면 이것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일까. 그 연장선에서 사적 제재 대행 주체의 자격 문제도 대두된다. 상술한 내용은 최소한의 감시와 규제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국가와 유사한데, 무지개운수 일당은 구성원들이 합의한 체계도, 조직도, 기관도 아니다. 간단히 말해 사적 제재가 아무리 정의롭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무슨 권한으로 하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물론 〈모범택시〉 시리즈는 이러한 자격의 정당성에 대해 답하지 않는다. 그저 어디선가 나타나 자신의 문제적인 상황을 모두 해결해주고 데뷔라는 꿈까지 이뤄주는 슈퍼맨을 보여줄 뿐이다. 단, 이 상상된 슈퍼맨[43]은 철저히 자의적으로 행동한다. 선(line)을 넘을 때만 개입하는 선(善)의 정당성 여부와 변질 가능성이 문제시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4. 분노의 전이와 새로운 사적 제재 주체의 출현 가능성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모범택시〉 시리즈에 나타난 사적 제재 대행은 어떤 의미 변화를 보이는가. 이는 지금까지 살핀 시즌별 상동성과 상이성처

43) 송치혁, 앞의 글, 159쪽 참조.

www.kci.go.kr

럼 사적 제재 대행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 각 시즌에 따라 예각화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범택시〉 시리즈의 모든 사적 제재 대행의 출발은 분노다. 기본적으로 분노는 인간의 강력한 행동 동기 중 하나다.[44] 분노는 당연한 윤리/원칙/관념이 위배되어 자기정체성이 흔들릴 때 느끼게 되는 것이고, 사회가 분노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때 사적 복수가 발생한다.[45] 하지만 〈모범택시〉 시리즈는 분노한 피해자가 직접 사적 복수에 나서는 여타 복수극과 다르게 피해자들의 복수를 타인이 대행하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복수극과는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관점과 해소 방법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시즌 1에서 강조되는 것은 피해자로서의 분노다. 일단 무지개운수 일당은 모두 범죄 피해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장성철의 부모와 김도기의 어머니는 모두 동일한 연쇄살인범에게 살해당했고, 최 주임의 남동생과 박 주임의 여동생 부부는 아파트 방화 및 칼부림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안고은의 언니는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자살했다. "우린 범죄로 가족들을 잃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나? 분노의 불꽃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야.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의 불꽃 속에서."(시즌 1, 14회)라는 장성철의 대사는 이러한 피해자로서의 분노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끼고 사적 제재 대행이라는 행위에도 공감하게 된다. 비록 그것이 교정/교화를 내세운 복수라는 속성이 있다하더라도 피해자들의 깊은 분노가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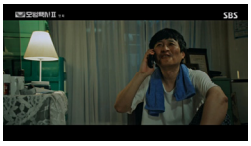
44) 윤석진, 「자기 치유로서의 복수극 〈더 글로리〉」, 『공연문화연구』 제47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23, 218쪽.
45) 신주진, 앞의 글, 37쪽.

www.kci.go.kr

이와 달리 시즌 2 이후부터는 관찰자로서의 분노가 강조된다. 무지개운수 일당의 과거, 즉 피해자로서의 분노가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시즌 2는 그것을 반복하기보다 분노를 매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그림13〉



〈그림14〉



〈그림15〉



〈그림16〉



〈그림17〉

피해자가 무지개운수에게 의뢰를 결정하는 순간은 위 〈그림13~17〉처럼 행복했던 과거와 절망스러운 현재가 연쇄적으로 그려지는 몽타주로 연출된다. 이러한 전말은 무지개운수의 조사를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시청자는 무지개운수가 중개하는 피해자로서의 분노를 보다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림17〉과 같은 의뢰 결정, 즉 사적 제재 대행이 교정/교화를 포기하고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엄벌적 복수라 할지라도 동의할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다. 나아가 시즌 1에서 김도기가 가해자들에게 보복의 이유를 알려주거나, 강하나에게 복수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것에 비해, 시즌 2 이후부터는 그러한 부연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시즌 1에서는 피해자의 심정이 무지개운수 일당을 통해 직접적으로 말해졌다면, 시즌 2부터 무지개운수 일당은 피해자들을 바라보는 시청자의 관점을 대변하고 시청자가 느끼는 분노를 대리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www.kci.go.kr

그리고 시즌 3에서는 관찰자로서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직접 설명된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절규하는 가해자들에게 시즌 2 이후부터는 대부분 장난과 조롱으로 응대하던 김도기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들에겐 우리도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수밖에"(시즌 3, 16회)라고 답한다. 이것이 현재까지 방송된 〈모범택시〉 시리즈에서 최종적으로 말해지는 사적 제재 대행의 본질이다. 전 시즌들이 방송되었던 지난 4년간 공권력 불신, 정의에 대한 열망,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위로, 교정/교화 가능성 등 사적 제재 대행을 둘러싼 수많은 언술이 있었지만, 시즌 3에 이르러서 사적 제재 대행은 '네가 무언가를 했으니 나도 해도 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때 선후 관계는 인과 논리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행동 항목에 무엇을 넣든 그에 따른 나의 행동은 언제나 긍정되고, 방식의 정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자신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스스로 합목적성을 지니는 사적 제재 주체가 탄생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모범택시〉 시즌 1은 사적 제재 대행의 개념적 발흥이라 할 수 있다. 이때 두드러지는 것은 피해자 구제다. 공권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이 오갈 데 없어진 억울한 피해자는 팽배한 분노 해소의 최후 수단으로써 사적 제재를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사적 제재 대행에는 정당성이 부여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교정/교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등의 미온적 측면이 존재한다. 시즌 2는 사적 제재 대행의 논리적 정립이라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사적 제재 대행에는 가해자 처벌이라는 목적이 추가된다. 공권력이 부재하는 상황이 도래하면서 사적 제재는 필요가 아닌 필연이 되었고, 그렇게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부터는 대행자가 가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시즌 3은 사적 제재 대행 논리의 확산이라 할 수 있다.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근거를 발판 삼아 이제 사적 제재 대행은 정의 구현이라는 의의를 갖게 된다. 모두가 합의

www.kci.go.kr

한 규율을 누군가가 어겼을 때 사적 제재 대행자는 그를 일말의 고민 없이 축출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다. 이러한 정의 구현이라는 취지 하에 이독제독(以毒制毒)이라는 사적 제재 방식은 묵과되고, 사적 제재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모두에게 열린다.

끝으로 이러한 〈모범택시〉 시리즈의 사적 제재 대행의 의미 변화는 작품 내적으로는 균열이 존재하고 이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다소의 위험성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즌 3 배구부 승부조작 에피소드 중 15년 전의 과거 상황이 그려지는 5회가 대표적이다. 대학 배구부원이 동료 선수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피해자 아버지는 아들이 살해되었다 생각하지만 가해자는 단순 폭행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고 좌절한 피해자 아버지는 자살 시도를 한다. 이때 피해자 아버지의 지인이었던 장성철은 “복수합시다.”(시즌 3, 5회)라고 말하면서 그를 무지개운수의 첫 의뢰인으로 삼고 가해자를 납치/고문할 계획을 세운다. 문제는 이것이 교정/교화가 말해지는 시즌 1 시점보다도 훨씬 이전 시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리즈 진행에 따라 정립되는 시즌 3에서의 사적 제재 대행 논리가 이미 한참 전에 말해진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즌 1에서 그려졌던 장성철의 내적 고뇌는 실종되어 과격파로서의 면모만 남게 되고, 그 연장선에서 사적 제재의 정당성에 대한 성찰 또한 진정성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이는 여러 차례 지적한 무지개운수 일당의 선제적 행동과 다시 관련된다. 피해자가 의뢰하기도 전에 무지개운수 일당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촉한다는 것은 달리 말해 의뢰 전에 이미 가해자의 악행을 어느 정도 조사했다는 뜻이고 그 정보가 시청자에게도 전달되었다는 뜻이다. 즉 서술 순서상 누군가가 이미 악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시청자는 도덕적 우월의 위치에서 이후 벌어지는 사적 제재를 보게 된다. 이 도덕적 명분은 앞서 언

www.kci.go.kr

급한 '네가 무언가를 했으니 나도 해도 된다.'는 사적 제재 논리가 지닌 최소한의 약점, 상대방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 및 그것의 타당성 여부마저 무화시킨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고, 관련된 모든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모범택시〉 시리즈는 착오적 현실 인식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유튜버 사건은 그것이 실현된 하나의 사례다. 장애인 주차구역 침범이라는 악행이 이유가 되어 자경단 활동이 시작되었지만 애초에 그것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는 진짜 장애인 차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노는 증발했다. 그리고 자경단에 편승했던 대중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감시하는 위치로 돌아갔다. 명분은 사라지고 오히려 도덕심이 약화되는 역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시즌 3까지 방송된 현 시점에서 〈모범택시〉 시리즈의 사적 제재 논리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 지점이다. 억울한 피해자의 분노로부터 시작된 사적 제재는 이제 정의 구현을 빌미로 한 공격 심리로 변질[46]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적 제재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기여하지 못한다. 경제성, 합리성, 효율성 등으로 대표되는 세계 질서에서의 반칙이 비도덕적 행위로 간주되고, 그 순간 사적 제재가 발동된다는 것을 떠올리면 결국 사적 제재가 만연해진 사회의 대중은 암흑의 숲[47]에서 늘 불안에 떨면서 공격적으로 어둠을 바라보는 존재가 될 공산이 크다.

46) 조시 코언, 『분노 중독』, 노승영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25, 98쪽.
47) 박민호, 「류츠신(刘慈欣)의 《삼체(三體)》를 통해 본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의 아이러니」, 『중국문학연구』, 제72집, 한국중문학회, 2018, 129-133쪽 참고.

www.kci.go.kr

5. 나가며

"인분 45만원, 소변 15만원, 비방 유인물 50만원"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해 알려진 이른바 '보복 대행 메뉴판'이다.[48] 서론에서 언급한 유튜버 사건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이 공적인 차원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제재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보다 은밀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고는 이처럼 사적 제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모범택시〉 시리즈에 나타난 사적 제재의 대행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모범택시〉 시리즈는 시즌이 반복되어도 기본적인 서사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외부 시간과 내부 시간이 병행한다는 것인데, 2년 주기라는 방송 시기에 따라 인물이 성장/변화하거나, 내외부 사건이 호명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서사 구조는 현실에서의 단편적으로 전시된 정보의 빈 곳을 채우는 작업, 즉 허구의 이야기를 구축하는 서사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가해자를 단죄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장르성은 사적 제재의 당위성을, 복수 이후 그려지는 피해자의 후일담은 사적 제재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적 제재는 개인적 회복에서 사회적 치료라는 의미로 확장된다. 이처럼 〈모범택시〉 시리즈는 허구의 이야기에 주기성을 부여함으로써 사적 제재를 응당 그래야만 하는 필연적 행위로 그려낸다.

한편 〈모범택시〉 시리즈는 각종 서사 요소가 시즌에 따라 변주된다는 특징도 존재한다. 삭제되는 것으로는 공권력을 상징하는 인물, 사적 제재

48) 김종우, 〈'복수 대행' 비즈니스 활개〉, 『연합뉴스』, 2026.05.19., https://v.daum.net/v/20260519063204236, (접속일: 2026.07.17.)

www.kci.go.kr

의 목적과 관련된 설정, 엔딩 카피 등이 있고, 추가되는 것으로는 피해자의 캐릭터성이 있으며, 변형되는 것으로는 사적 제재 대행의 목적과 관련된 특정 문구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것은 결국 사적 제재 대행의 의의다. 사적 제재의 대행이 정의 구현이라는 공익성과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공정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적 제재는 한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규율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필연화/강압화된 사적 제재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논의되지 않는다. 모두를 위한 행위처럼 포장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옳은 행위인가에 대한 고민이 희박해진다는 뜻이다.

이를 바탕으로 〈모범택시〉 시리즈에 나타난 사적 제재 대행의 양상을 시즌별로 정리하면 개념적 발흥, 논리적 정립, 논리의 확산으로 요약된다. 이를 관통하는 것은 부조리하고 부당한 일에 대한 분노다. 하지만 시즌이 진행됨에 따라 분노는 피해자에서 관찰자로 전이되고, 도덕적 명분이 추가됨에 따라 사적 제재 대행의 논리는 더욱더 견고해진다. 시즌 3이 종료된 현 시점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신흥 사적 제재 주체의 발흥 가능성이다. 타인의 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는 불안한 대중이 바로 그들이다.

주지하듯 분노는 인간의 기본 감정이기 때문에 대중과 교호해야만 하는 대중문화콘텐츠에서는 분노 해소를 골자로 한 창작물들이 앞으로도 다양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특히 사법 불신이 막연한 느낌에만 그치지 않고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한국사회의 현실[49]에서 법을 초월한 방식으로 분노를 해소코자 하는 사적 제재 소재 콘텐츠는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

49) 박승환, 〈故 이채원 양 살해 장윤기 부친 '현직 경찰관'이 증거 인멸〉, 『MBC』, 2026.07.01.,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4325_37004.html, (접속일: 2026.07.17.)

www.kci.go.kr

러나 〈모범택시〉 시리즈의 사적 제재 대행 논리가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살핀 본고에 따르면 조금은 논의의 전회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적 제재가 사회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상하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대중의 공모다. 대중문화콘텐츠는 태생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별다른 실효성을 지니지 못한다. 사적 제재 콘텐츠가 왜 유행하는가와 더불어 그것이 한 사회에 어떠한 파장을 일으키는가라는 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연구대상을 〈모범택시〉 시리즈로 한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두지만 몇 가지 단초는 확인된다. 상식의 수준에서도 사적 제재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고, 무지개운수 일당과 같은 드라마 속 인물들은 엄연한 범죄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는 그들의 행위에 만족과 쾌감을 느낀다. 이는 사적 제재가 허구 세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행위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방법적으로는 악이나 결과적으로는 선한 것처럼 보이는 어떤 행위를 대행시키기 때문에 주체 스스로의 도덕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세계 속 자신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의 문제, 수많은 콘텐츠와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체성을 어떻게 주조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시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자료

극본 오상호·이지현, 연출 박준우, 〈모범택시 1〉 영상물, SBS, 16회, 2021.04.09.-2021.05.29.

극본 오상호, 연출 이단·장영석, 〈모범택시 2〉 영상물, SBS, 16회, 2023.02.17.- 2023.04.15.

극본 오상호, 연출 강보승, 〈모범택시 3〉 영상물, SBS, 16회, 2025.11.21.-2026.01.10.

1. 논문과 단행본

권양현, 「텔레비전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캐릭터 유형의 변화 양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42집, 한국극예술학회, 2013, 251-278쪽.

김윤진, 「엄벌에 대한 대중의 열망 : TV 드라마 속 사적 제재의 정당화 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김일중 외, 「OTT 플랫폼의 한국 드라마 서비스 확대와 드라마 제작사의 전략 변화」, 『인문콘텐츠』 제59호, 인문콘텐츠학회, 2020, 155-194쪽.

김태경 외, 「강력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예측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6권 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8, 19-45쪽.

박상완, 「공권력에 의한 사적 제재의 수행 원리와 아젠다 고찰 -〈나쁜 녀석들〉, 〈비질란테〉, 〈지옥에서 온 판사〉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98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5, 199-225쪽.

백소연, 「〈모범택시〉에 나타난 응보적 정의의 구현 양상과 그 의미」, 『문화와 융합』 제44권 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1025-1042쪽.

_____, 「사적 제재의 변질: 공권력의 일탈과 게임화된 정의- 〈노 웨이 아웃: 더 룰렛〉을 중심으로 -」, 『인문학연구』 제64권 4호,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5, 189-212쪽.

박노현, 「복수사회, 법치와 정의의 무능과 복수라는 권능- 드라마 〈모범택시〉·〈3인칭 복수〉·〈더 글로리〉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62권 3호, 충남대학교 인

www.kci.go.kr

문과학연구소, 2023, 35-65쪽.
_____, 「극적 정동(Dramatic Affect)으로서의 시즌제 드라마 - JTBC 미니시리즈 〈모범형사2〉를 중심으로 - 」, 『한국학연구』 제68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3, 431-459쪽.
박민호, 「류츠신(刘慈欣)의 《삼체(三體)》를 통해 본 정치적 알레고리와 윤리의 아이러니」, 『중국문학연구』, 제72집, 한국중문학회, 2018, 123-142쪽.
송치혁, 「1970~1980년대 수사드라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신주진, 「'복수 정동'의 이행 구조 연구 : 2000년 이후 한국 TV드라마 '복수극'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안혜연, 「신자유주의 시대 사적 복수의 시스템화와 정의의 탈정치화 -〈모범택시〉, 〈지옥에서 온 판사〉, 〈국민사형투표〉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10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26, 145-178쪽.
윤석진, 「신자유주의 시대, '치유(治癒)' 혹은 '기망(欺罔)'의 텔레비전드라마 - 언론과 법조 소재 미니시리즈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92집, 어문연구학회, 2017, 271-298쪽.
_____, 「자기 치유로서의 복수극 〈더 글로리〉」, 『공연문화연구』 제47집, 한국공연문화학회, 2023, 209-234쪽.
이혜정, 「글로벌 시즌제 K-드라마 기획개발 방식 연구 : 〈지나의 잔치〉 시리즈의 기획 실제」,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6.
정지송, 「법은 가해자들에게 그들의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고 있는가? - 웹툰 〈비질란테〉를 통해 본 네티즌의 응보에 대한 여론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한국경찰연구』 제19권 3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189-228쪽.
최시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5.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2.
_____, 『서사의 위기』, 최지수 옮김, 다산초당, 2023.
미셸 푸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심세광 외 옮김, 난장, 2012.
스티브 닐·프랭크 크루트니크, 『세상의 모든 코미디』, 강현두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www.kci.go.kr

조너선 하이트, 『불안 세대』, 이충호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24.
조시 코언, 『분노 중독』, 노승영 옮김, 웅진지식하우스, 2025.
테리 이글턴, 『악』, 오수원 옮김, 이매진, 2015.

3. 기타자료

〈'복수 대행' 비즈니스 활개〉, 『연합뉴스』, 2026.05.19., https://v.daum.net/v/20260519063204236. (검색일 : 2026.07.17.)
〈여경 '공익 제보자' 협박 논란에 "악의적 편집"…반박 나선 경찰〉, 『KNN NEWS』, 2025.12.19., https://www.youtube.com/watch?v=NKkSMR97Sf8&t=94s. (검색일 : 2026.07.17.)
〈故 이채원 양 살해 장윤기 부친 '현직 경찰관'이 증거 인멸〉, 『MBC』, 2026.07.01.,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4325_37004.html. (검색일 : 2026.07.17.)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Patterns of Vigilantism Agency in the Drama Series *Taxi Driver*

Park, Sang-Wan(Chonnam University)

Recently, various forms of private sanctions have been occurring in Korean society. With this issue in mind,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the patterns of vigilantism agency as depicted in the drama series *Taxi Driver*.

First, the *Taxi Driver* series is characterized by a consistent basic narrative structure. Through this narrative structure, information presented in reality is reconstructed into a recorded story, and as the series progresses through seasons, the meaning of vigilantism agency expands from personal recovery to social cure. As the fictional narrative takes on a cyclical nature, vigilantism agency come to be perceived not merely as justified or necessary, but as an inevitable act that simply must be carried out.

Furthermore, the *Taxi Driver* series is characterized by variations in various narrative elements across seasons. What is ultimately reinforced through these omissions, additions, and modifications is the significance of vigilantism agency namely, that it serves the public interest by upholding justice and embodies a fairness recognized by all members of society. However, even though it is packaged as an act for the common good,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truly the right thing to do is downplayed.

Ultimately, the vigilantism agency in the *Taxi Driver* series can be summarized, season by season, as conceptual emergence, logical establishment, and `the dissemination of that logic. While the foundation is the emotion of anger, as the series progresses, that anger shifts from the victim to the observer, and a moral justification is added. Consequently, the possibility arises for the emergence of

www.kci.go.kr

new agents of vigilantism. These are the anxious members of the public who arbitrarily judge the actions of others to morally justify their own behavior.

(Keywords: Revenge, Anger, Vigilantism Agency, Narrative Cycle, Justice, *Taxi Driver*)

논문투고일 : 2026년 8월 24일
심사완료일 : 2026년 10월 13일
수정완료일 : 2026년 10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6년 10월 18일

www.kci.go.kr